

이시영[李始榮]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

1869년(고종 6) ~ 1953년



1 개요

이시영(李始榮)은 1869년 12월 3일 서울 저동(苧洞)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 자는 성옹(聖翁)이다. 호로 성재(省齋) 혹은 시림산인(始林山人)을 사용했다. 만 16세 때부터 관리 생활을 시작했으며, 외부 교섭국장, 평안남도 관찰사, 한성재판소장, 법부 민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을사늑약이 맺어질 당시 강하게 항의하였고, 비밀결사 신민회가 결성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 병합'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일가족과 함께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경학사 및 신흥강습소를 설립에 주축이 되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고, 해방 이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다. 해방 이후 1948년 7월 24일부터 1951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의 제1대 부통령을 역임하였다.

2 민족운동가로의 여정

이시영은 1869년 12월 3일 서울 저동(苧洞)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 자는 성옹(聖翁)이다. 호로 성재(省齋) 혹은 시림산인(始林山人)을 사용했다. 이시영의 집안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명문가문이었다. 조선시대 명재상이었던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 부친은 우찬성 이조판서 이유승(李裕承), 어머니는 이조판서 정순조(鄭順朝)의 딸이었다. 1876년부터 1884년까지 한문을 수학하였고, 만 16세였던 1885년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동몽교관, 형조좌랑을 역임했으며, 1891년 중광문과에 급제한 후에는 홍문관교리, 승정원부승지, 궁내부수석참의가 되었다. 1896년 장인이었던 김홍집(金弘集)이 죽게 되자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때 이회영(李會榮), 이상설(李相高) 등과 교류하며 지식을 쌓았고, 근대 학문을 탐구하였다.

1905년, 외부 교섭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영일동맹이 체결되었을 때 영국이 한국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영사관에서 보낸 을사늑약 초안을 결사적으로 거부할 것을 박제순에게 건의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국장에서 물러났다. 1906년 평안남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교육의 중요성을 느낀 이시영은 평안남도 각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게 하고 배일 의식을 고취 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 봄, 관찰사에서 물러났으며, 중추원 칙임의관(勅任議官)이 되었다. 관직 생활을 하던 중 이회영, 안창호(安昌浩), 전덕기(全德基), 이동녕(李東寧) 등과 함께 비밀결사 신민회를 결성하는 데 참여하였다. 1908년 한성재판소장, 법부 민사국장, 고등법원 판사직을 맡았으며, 대한학회 기호흥학회 회원으로 애국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서간도로의 이주와 민족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노력

일본의 압박이 더 커지자 이시영을 비롯한 이건영(李健榮), 이석영(李石榮), 이철영(李哲榮), 이회영, 이호영(李護榮) 6형제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일가 50여 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할 것을 결정했다. 박은식은 국권회복운동을 위해 명문거족이나 권문세가 출신이 대규모로 망명한 경우는 이시영 형제가 유일하다고 평가했다. 1910년 말 이시영 가족들은 서간도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 추가가(鄒家街)에 정착하였다. 정착 이후 이시영은 1911년 4월, 대고산(大孤山)에서 노천군 중대회를 개최하는 데 깊게 관여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 진흥 및 독립군 양성을 위해 경학사(耕學社)와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 설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13년에는 일본 측의 위협을 피하고, 원세개를 설득하여 일본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북경으로 이동했다.

1919년 2월, 서간도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때 이상룡, 이동녕, 김동삼(金東三) 등과 함께 참여하고 서명하였다. 같은 해 고종을 중국으로 망명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고종이 사망하면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이동녕, 조완구, 조성한 등을 북경에서 만나 장래 독립운동 방침을 논의했다. 이후 상해로 이동하였으며, 1919년 4월 10일 독립운동가 29명으로 구성된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사항이 결정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선포된 후 약 한 달간 법무총장 직을 맡았으며, 9월 15일부터 재무총장이 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정 상황을 총괄했다.

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마지막 보루

1920년 하반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은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체제가 형성되면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형성되었고, 연통부, 교통국이 파괴되어 국내와 연결이 어려워졌다. 1920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에 도착했다. 하지만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1921년 5월 이승만은 상해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이시영은 신규식, 이동녕 등과 함께 흔들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새로운 국제전이 올 것을 대비하고, 이때를 이용하여 독립을 위한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1922년 7월 안창호와 여운형(呂運亨)이 주도한 시사책진회에 참여하였으며, 10월에는 김구(金九)가 주도한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에 참가하여 통상회원으로 활동했다.

1926년부터 시작된 민족유일당 운동이 1929년 말에 중단되게 되었다. 홍남표(洪南杓), 한위건(韓偉健) 등 좌파가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留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을 결성하자, 이시영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지를 주장하던 인사들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결성에 참여하였다. 1932년 윤봉길의 '상해 의거'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항주로 이동하였다. 이때 이시영은 한국독립당 이사,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항주에서 머무는 동안 이시영은 총 23개의 장으로 구성된 『감시만어(感時漫語)』를 저술하였다. 1934년 3월 1일 발간된 이 책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였다.

1935년 김원봉(金元鳳)을 중심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이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시영은 김구 등과 함께 한국국민당을 결성하는 데 앞장섰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이동한 후인 1940년에는 범무장 직을 맡았다. 관련사료 1942년부터 해방될 때까지는 재무장이 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정을 담당했다.

5 해방과 귀국, 초대 부통령 취임

1945년 11월 23일, 이시영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제1진의 한 사람으로 한국했다. 만주로 떠났던 6형제 중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는 이시영 혼자였다. 1946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회장에 선출되었으나, 곧 사퇴했다.

이시영이 중요시했던 활동 중 하나는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 직후 신흥무관학교 부활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신흥무관학교의 건학이념 계승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다. 1947년 2월 재단법인 성재학원(省齋學園)을 설립했다. 이것은 신흥전문학관(新興專門學館)으로 발전되어 1회, 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47년 9월, 공직을 사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직도 사퇴하였다.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관련사료

1951년 5월 9일, 국정 혼란과 사회부패 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국민에게 고함」을 발표하고 사직하였다.

1953년에 서거하였으며,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다. 서울 정릉 묘소에 안장되었다가, 1964년 수유리에 있는 묘소로 이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